'가족'이라는 뜻을 가진 우쿨렐레 앙상블 '오하나(O hana)' 회원들.

행복을 전하는 네 줄

우쿨렐레 배워볼래?

크기 작고 코드 쉬워 남녀노소 '대세 악기'

음악 학원·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좌 봇물

광주 서구문화원, 31일 '우쿨렐레 페스티벌'

'마담 푸르스트의 비밀 정원'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다. 주인공 폴은 초록색 식물이 가득한 푸르스트의 집을 방문, 그녀가 키우는 식물을 먹고 과거의 추억과 상처를 떠올린다. 마담 푸르스트가 연주하는 우쿨렐레는 폴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도 한다. 영화 속에 흐르는 경쾌한 우쿨렐레 음악은 행복한 기운을 전한다.

영화를 보고 나면 나도 한번 우쿨렐레를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 두기만 했던 우쿨렐레를 다시 꺼내들었다는 지인도 있었다.

피겨 스타 김연아가 통신회사 CF에 등장해 "잘 생겼다"고 노래하며 연주하던 악기도 바로 우쿨렐레다. 3인조 밴드 '우쿨렐레 피크닉'은 젊은층에게 인기 있는 그룹이다.

우쿨렐레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3~4년 전부터 조금씩 바람이 불더니 최근에는 '대세'가 됐다. 악기 하나쯤은 연주하고 싶었던 이들이 부담 없이 배워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자, 가볍게 스트로크를 하세요. 박자를 맞춰가면서요. 상대방의 연주도 들어보셔야 해요."

지난달 광주서구문화원. 강사 박경희(55)씨의 지도로 우쿨렐레 강습이 한창이다. 1년 넘게 교육을 받은 40~60대 15여명의 회원들이 우쿨렐레를 치며 부르는 노래는 장윤정의 '어머나'. 각자의 악기가 어우러진 근사한 화음이 일품이다.

바로 이어지는 클래스는 이제 막 시작된 초급반이다. 아직은 스트로크도 어색하고 박자 맞추기도 어렵다. 악보 보랴, 코드 잡으랴 힘들기는 하지만 천천히 선생님의 모습을 따라가며 다들 열중하는 모습이다. 이날 배운 곡은 3개의 코드로 구성된 동요 '개구리 노총각'.

주부 박정옥(44)씨는 "한 때 기타를 배우기도 했는데 손가락이 작아서 치기가 힘들었다"며 "우쿨렐레는 기타보다 코드 잡기도 쉽고 부담이 없어 좋다"고 말했다.

영화 '마담 푸르스트의 비밀 정원'

우쿨렐레(ukulele)는 1870년대 포루투갈에서 하와이로 건너온 전통 민속 악기다. 모양이나 음색이 기타와 비슷하지만, 기타가 6줄인데 비해 줄이 4개고 크기도 60cm를 넘지 않아 다루기 쉽다. 또 맑고 경쾌한 소리를 담고 있어 인기가 많다. 오른손으로 손을 놀리는 모습이 벼룩이 튀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 '벼룩이 톡톡 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쿨렐레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악기'라고 말한다. 어떤 악기보다 배우기 쉬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흔히 악기를 잡은 첫날부터도 스트로크와 코드 한 개를 배워 간단한 동요를 연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간편한 점도 우쿨렐레의 매력이다.

우쿨렐레는 연습용의 경우 15~20만원선이면 구입이 가능하다. 더 싼 제품도 많지만 울림통 등을 고려하면 너무 저렴한 악기는 연주하는 데 불편하다.

우쿨렐레를 배울 수 있는 곳은 많다. 광주 서구 문화원과 남구문화원 등 지역 문화원과 평생 교육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음악학원 등에서 배울 수 있다. 혼자 연주하는 것도 좋지만 앙상블을 이뤄 화음을 만들어 가는 재미가 그만이다.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을 통해 독학을 하는 이들도 많다.

"악기를 배우려면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해야하는데 우쿨렐레는 코드가 간단해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줄이 4줄 밖에 안돼 기타보다 훨씬 쉽죠. 기타 코드는 줄을 서너개씩 잡아야 하지만 우쿨렐레는 한줄만 잡아도 되거든요. 금방 연주가 되니 성취감도 느끼기 쉽죠. 주로 40~60대 분들이 많이 배우는데, 언젠가는 악기 하나쯤 배워야지 하는 불씨를 갖고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예요. 혼자 배우다 보면 금방 지치기도 하는데 여럿이 함께 하니 재미도 있고, 또 무대에 설 기회도 생겨 좋아들 하십니다. 또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도 즐기시구요."(박경희 강사)

우쿨렐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단 연주를 한 번 들어보는 게 좋다. 마침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동호인들의 우쿨렐레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광주서구문화원이 주최하는 제2회 우쿨렐레 페스티벌이 31일 오후 5시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알로하 은빛 앙상블'(남구문화원), 'O hana 앙상블'(서구문화원), '엄마랑 나랑'(산수도서관), '화려한 외출'(정부종합청사 동아리), 'Le Le 앙상블' 등이 출연한다. '갑돌이와 갑순이', '등대지기', '라쿠카라차', '무조건', 'yesterday' 등 다양한 연주를 만날 수 있다.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무료 관람. 문의 062-681-417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만남… 또 다른 에너지

김대진 작 '홍매'

정정임 서양·김대진 한국화 전남옥과미술관 '日月전'

도립 전라남도옥과미술관(관장 최준호)은 오는 12월31일까지 서양화가 정정임 작가와 한국화가 시반 김대진 작가를 초대해 '일월(日月)'전을 연다.

질긴 생명력을 가진 잡초의 생에서 인생의 무한함과 사유를 끌어내온 김 작가는 전남대 미술학과 출신으로 화순 방면에 있는 무등산 자락에 터를 잡은 똥밥갤러리 대표이자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조선대 서양화과 출신인 정 작가는 나무의 삶과 자연에서 인간의 모습을 찾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장르는 다르지만 자연을 매개로한 두 작가의 작품은 하나처럼 이어진다. 대자연의 여러 요소들을 보고 느끼며 자신의 삶과 주변의 삶을 탐구하고 있는 두 작가는 자연에 내재된 이야기와 형태를 새롭게 풀어낸다.

정 작가의 '월송'과 김 작가의 '어서 오시게'에서는 자연이 찬란하게 내뿜는 빛이 소나무와 어우러져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특히 대자연의 순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둥근달과 꽃들이 어우러진 정 작가의 작품과 꽃과 나무, 동물들의 모습을 한국적 정서로 표현한 김 작가의 작품들은 서정미가 돋보인다. 문의 061-363-727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동갑내기' 김영욱·김다솔 내달 4일 금호아트홀 무대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

피아니스트 김다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젊은 연주자로 꼽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과 피아니스트 김다솔은 동갑내기 친구다. 3년전 한 무대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줬던 두 사람이 다시 한번 클래식 팬들을 만난다.

오는 11월 4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김다솔·김영욱 듀오 콘서트를 통해서다.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노부스 콰르텟'의 바이올리니스로 활동중인 김영욱은 뮌헨 국립음대에서 크리스토프 포펜을 사사하고 있다. 베오그라드 쥬네스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레오폴드 모차르트 콩쿠르 등에서 입상했다.

금호아트홀 상주 음악가로 활동중인 김다솔은 뉴욕필하모닉 내한 당시 협연자로 인상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현재 하노버국립음대에서 수학중인 김씨는 에피날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슈만 국제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등에서 입상했다.

연주 레퍼토리는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멜로디'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번 바단조', 라벨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 사장조', 드뷔시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사단조'다.

티켓 가격 일반 3만5000원, 학생 2만5000원. 문의 062-360-84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